



‘부르고뉴의 대명사 알베르 비쇼’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피노 누아 비에유 비뉴

Albert Bichot Bourgogne Vieilles Vignes de Pinot Noir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포도품종	피노 누아 100%		
알코올	12.04%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신선한 과일향과 피노누아의 전형적인 특징인 체리, 잘 익은 자두, 딸기류의 균형잡힌 바디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제품설명



부르고뉴의 코트 드 뉘 지역은 전세계 와인 생산지 중 가장 우수한 피노누아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다. 흔히 레드 품종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포도가 바로 피노누아라고 하며, 또한 가장 색이진 포도품종이라고도 여겨진다. 하지만 까다로운 것만으로 피노누아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까다로운 만큼 맛과 향과 그 감촉이 그 어떤 포도 품종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품종이다. 비에이비뉴는 오래된 포도나무라는 뜻이며, 부르고뉴 지역 피노누아의 기본적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9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9점
2018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7점
2017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8점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떼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